



삼성-크라온제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맞손

삼성전자는 크라운제과와 함께 '아이 LIKE 제트봇 AI'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삼성전자는 캠페인 일환으로 2023년형 '비스포크 제트 봇 AI'에 탑재된 '우리 아이 마중 기능'과 연계해 '안전한 하굣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베스트샵, 어린이 위한 미술관 변신

LG전자 베스트샵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관으로 변신한다. LG전자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3개 매장에 '키즈 아트센터'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키즈 아트센터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지역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린 미술 작품을 전시한다. /LG전자



롯데케미칼, '뽀로로 팝업북' 어린이의원 기부

롯데케미칼이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만든 '뽀로로 팝업북' 200여 권을 보바스어린이의원에 기부했다. '뽀로로 팝업북'은 책을 펼쳤을 때 숨어있던 캐릭터와 구조물이 입체적으로 올라오는 형태로 환아들에게 상상력과 호기심을 심어 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롯데케미칼



IBK기업은행, 생성AI 기반 금융특화서비스 속도

IBK기업은행은 한국경영정보학회와 지난달 28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생성AI 기반 금융특화서비스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박주용 IBK기업은행 디지털그룹 부행장(오른쪽)과 김종원 한국경영정보학회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 △체육국 체육협력관 이정미
- ◆한양증권 ◇신임 부사장 △재무회계부장 송우성 △복합금융부장 이대희
- ◆티몬 ◇상무 △김학중(투어비즈본부장) △김관태(라이프&푸드사업본부장) △전구경(마케팅본부장) △이수현(경영지원본부장) ◇이사 △이정민(편선&뷰티사업본부장) △권도완(운영사업본부장) △박성호(제휴사업본부장)

부음

▲박송자씨 별세, 이희수(신한저축은행 대표이사)·경수·종수·미옥씨 모친상 = 2일,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장지 충남 천안시 병천면 선산. 02-2290-9442

알맹이 빠진 '에드워드 호퍼' 전



홍경한의 시시일과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는 1882년부터 1967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리얼리즘 작가이다. 황량한 도시 또는 시골 환경에서 외로운 인물을 묘사한 그의 그림들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요한 절망과 소외, 나쁜 권태를 보여준다. 바쁜 도시인들의 심리적 그늘과 공허함이 '정지된 시간'에 담겼다.

호퍼의 국내 첫 개인전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오는 8월 20일까지 개최된다. 그와 관련된 기록 4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미국 휘트니미술관과 공동 기획했다.

작품들은 20세기 초 미국의 생활 풍경 화가들의 모임인 애시칸파(派: Ashcan School)의 일원이면

서 호퍼의 스승이었던 로버트 헨리의 영향을 받은 인상과 경향의 그림에서부터, 신비적 이상주의자 겸 사상가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수채화, 드로잉 등을 아우른다. 모두 160여점이다. 전시는 이를 연대기가 아닌 파리, 뉴욕, 잉글랜드 등 작가의 활동지역(여정)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눈에 띄는 작품은 긴장감 역력한 에칭(etching)들이다. '밤의 그림자'(1921), '이스트사이드 실내'(1922) 등의 작품을 통해 램브란트를 좋아했던 작가의 성향을 읽을 수 있다. 명암대조에 의한 극적 표현을 특색으로 한다. 때문에 일부에선 그를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지칭하는 화파인 테네브로시(tenebrosi)로 분류한다.

전시에선 작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장부, 사진, 편지와 같은 기록물 110점도 함께 선보인다. 호퍼는 40대가 돼서야 주목을 받았는데, 30대 초반이었던 1913년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 최초의 국제 현대 미술전

인 아모리 쇼(Armory Show)에서 처음으로 작품을 판매한 것을 제외하곤 별이 신봉치 않아 생계를 위해 광고·출판물 삽화, 잡지 표지 디자인 등을 그렸다. 이들 자료는 호퍼의 예술이 구축되는 과정과 그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필 수 있도록 돕는다.

유화는 50여점이다. 그가 남긴 유화가 400여점인 것에 비해 다소 적다. 대표작은 당시 78세였던 아내 조세핀을 모델로 한 '햇빛 속의 여인'(1961)이다. 휴식 같은 장면 속 웅장한 모를 무상함이 감도는 게 특징이다.

다만 올 상반기 가장 기대를 모은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알맹이는 거의 빠졌다. '해외 소장품 걸작전'의 일환이라는 설명이 무색할 정도다. 일례로 호퍼하면 떠오르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1942)은 목탄 습작으로 나왔다. 영화 '셜리에 관한 모든 것'(2013)에 영감을 준 '객차'(1965) 등의 작품들과 대공황을 겪은 1930년대 이후의 시대상과 군상들의 쓸쓸한 내면이 짙게 묻어나는

'호텔 방' 시리즈, 1920년대 주요 작품군인 '자동판매기(식당)'(1927)와 '잡수이'(Chop suey, 1929) 역시 누락됐다. 판화, 스케치 등도 가치가 있지만 흑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할 법하다.

사실상 이번 전시는 에드워드 호퍼 '아카이브 전'에 가깝다. 전시 제목도 아카이브 전으로 바뀌어 정직하다. 전시 성격과 별개로 동시대미술을 선도해야 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굳이 4개월 동안 전관을 내주면서까지 상업적 성격의 블록버스터 전시를 해야만 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반세기 전 죽은 망령을 소환해 오랜 기간 박제할 만큼 세상이 한가한지 되묻게 된다.

외국 유명 미술관 소장품을 돈 주고 끌어와 재탕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기획역시 긍정적으로 보기에 어렵다. 관람객 수가 미술관 운영의 주요 성과지표 중 하나임을 모르진 않으나 '브랜드 장사'는 일반 전시 기획사들이 해도 된다.

/미술평론가·LHC Larchiveum 총괄디렉터

포스코, 美 ICCC 참가... 'K-기업시민' 모범사례 전파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

컨퍼런스 주제 '회복탄력성 재고' 1%나눔재단 사회공헌활동 소개

포스코가 1%나눔재단 등 다양한 기업시민사회공헌활동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포스코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ICC)에서 'K-기업시민'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2일 밝혔다.

글로벌 기업시민 콘퍼런스는 미국 보스턴칼리지 경영대학 산하 기업시민연구센터(BCCCC)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지속가능성·ESG(환경·사회·지배구조)·탄소중립·봉사활동·조직문화·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례 발표와 주제토론이 진행된다. 제너럴모터스 테라 다간 부사장, 웰스파고 사라리처 부사장, 포스코경영연구원 고준형 원



최영 포스코 기업시민실장(왼쪽 네번째)이 회사를 대표해 혁신상을 수상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장, 포스코 최영 기업시민실장 등 기업·기관·학계의 기업시민분야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컨퍼런스 주제는 '회복탄력성 재고(Rethink Resilience)'다. 고준형 원장은 주제 토론 세션에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포스코의 리얼밸류(Real Value) 경영을 소개했다. 리얼밸류 경영은 기업활동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제공

하는 경제·환경·사회적 가치의 총합을 높이는 경영 모델이다. 포스코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현하는 방법론이다.

최영 기업시민실장은 '조직 내 기업시민부서 영향력 증대 방안(Grow Your Impact: Expand Your Team)'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 포스코 1%나눔재단의 운영 노하우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했다.

최 실장은 "포스코 1%나눔재단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임직원 주도 공익법인"이라며 "수혜자 선정과 프로그램 모니터링, 재단 홍보까지 기부 직원으로 구성된 150명의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대표사업 중 하나인 1%마리채(My little Charity)에서도 임직원들이 평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 기부처로 등록할 수 있게 해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의욕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1%나눔재단은 지난 2013년 11월 설립됐다.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 3만 5000여명의 기부와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운영되는 비영리 재단이다. 설립 이래 2022년 말까지 총 855억원을 모금했다. 726억원을 우리사회에 필요한 곳에 지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 점검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 캠페인 소모품 교환·보충, 항균 서비스

현대자동차가 어린이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마련했다.

현대차는 보다 안전한 등하원길을 조성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자시스템, 엔진룸,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전반을 점검해주는 '차량 진단점검 서비스'와 와이퍼,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등 일반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소모품 교환·

보충 서비스'에 더해 실내 항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무상점검 캠페인은 어린이집·초등학교 통학차량으로 현대차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운티/에어로타운 등 중·대형버스를 사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5월 2일부터 8월까지 캠페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접수하면 서비스 제공 기간인 5월 15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각 지역 시도교육청 또는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등 별도 점검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금호리조트, 6일 '패밀리데이 쇼' 개최

4개 콘도시설서 참여형 미술공연

금호리조트는 어린이 날을 기념해 오는 6일 전국 4개 콘도시설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고객 참여형 미술 공연 '금호리조트 패밀리데이 쇼'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금호리조트 패밀리데이 쇼는 가정의 달과 어린이 날 연휴를 맞아 금호리조트를 찾은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어린이 및 가족 공연 전문 미술사인 문준혁 아티스트를 비롯해 다년

간의 경력을 보유한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미술 공연이다.

통영·화순·설악·제주 등 4개 콘도시의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버라이어티 매직쇼 ▲LED 버블쇼 ▲레인보우 별문쇼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 파이어 효과와 LED 등을 이용한 테크니컬 매직쇼부터 비눗방울, 풍선 등을 활용한 퍼포먼스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